



ESG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 단기투자상품 글로벌 최우수 은행

세계가 인정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OCTOBER 2025 Vol.247

CEO REPORT

MONTHLY CEO

건축·옥실 자재 전문기업
(주)대명엔컴 송영식 대표·송명용 이사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OCTOBER 2025 Vol.247



CEO Report 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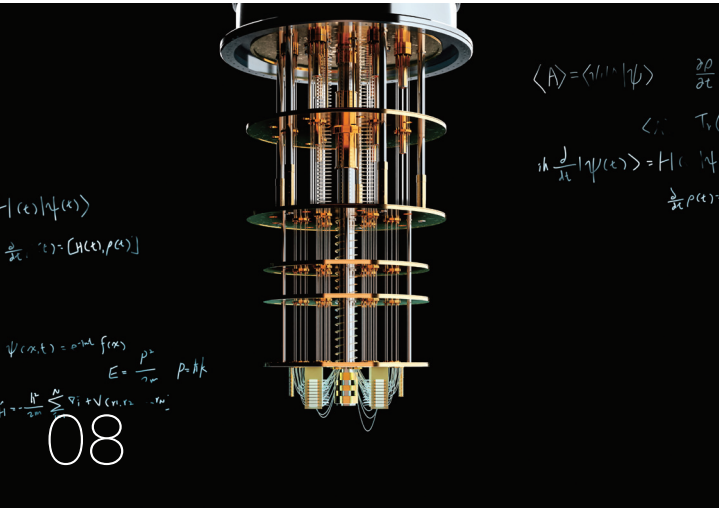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통권 247호
등록번호 서울증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서경란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461
기획 IBK경제연구소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SPECIAL REPORT

- 02 **THEME**
양자기술
- 04 **SPECIAL ①**
제약·통신 등 산업 전반
양자혁명發 기회 열린다
- 08 **SPECIAL ②**
10년 내 본격화될 양자 전환
기업, 인재·역량 준비할 시점
- 12 **TABLE TALK**
양자기술 선진국에 뒤처진 한국
틈새 전략과 제조·센싱이 돌파구



ECONOMY

- 18 **MONTHLY CEO**
건축·육실 자재 전문기업
(주)대명엔컴 송영식 대표·송명용 이사
- 24 **START-UP**
인네이처, 딜리버리랩, (주)에이비알,
컨포트랩, 아이디어스투실리콘, 뉴로팩
- 28 **MARKETING**
AI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
고객 니즈의 '맥락'을 읽어라

- 32 **TAX**
대표와 회사 간 거래
세무 리스크 관리법

- 34 **IBK EXPLORING**
제76회 희망중소기업포럼 개최

- 38 **GLOBAL ECONOMY**
지금 세계는:

- 40 **INDUSTRY TREND**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CULTURE

- 42 **LAW**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이 허위일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 44 **ESSAY**
리더십, 사적 이익을 넘어 공적 정의로
- 46 **WORK OUT**
달리기 좋은 계절 가을,
스트레칭으로 더 즐겁게
- 48 **IBK SUPPORT**
IBK역사관 이음스퀘어(IE:UM²)



양자기술

4차 산업혁명의 다음 무대는 양자기술이다. 양자컴퓨팅은 신약 개발, 금융 시뮬레이션, 첨단 소재 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양자 네트워크는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 환경을 구현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개발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양자컴퓨팅과 양자 네트워크가 가져올 산업 변화와 비즈니스 기회, 국내 생태계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QUANTUM TECHNOLOGY

- 02 THEME
양자기술
- 04 SPECIAL ①
제약·통신 등 산업 전반
양자혁명發 기회 열린다
- 08 SPECIAL ②
10년 내 본격화될 양자 전환
기업, 인재·역량 준비할 시점
- 12 TABLE TALK
양자기술 선진국에 뒤쳐진 한국
틈새 전략과 제조·센싱이 돌파구

글. 최민철

제약-통신 등 산업 전반 양자혁명發 기회 열린다

양자기술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연한 산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양자컴퓨팅, 통신, 센서 기술을 앞다퉈 상용화하며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산업 역시 도전에 직면하는 동시에 이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Profile. 최민철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KAIST 경영공학 박사
- POSTECH 물리학 학사

양자 혁명, 산업 지형을 바꾸는 두 번의 물결

20세기 초, 기존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양자역학이 등장했다. 에너지와 운동량이 연속이 아닌 불연속 값으로 존재한다는 ‘양자화’ 개념에서 출발해 입자-파동 이중성·중첩·얽힘 같은 원리가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틀이 됐다. 직관적으로는 난해하지만 실험적으로 입증되며 현대 과학기술의 기초가 마련됐다.

이후 20세기 중반, 양자 현상의 응용이 본격화하면서 제1차 양자혁명이 전개됐다. 반도체 소자, 레이저 같은 발명은 전자와 광자를 제어하는 하드웨어 기술을 열었고 컴퓨터·스마트폰·광통신망 등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됐다.

20세기 후반부터는 개별 양자 상태를 직접 제어하고 정보 단위로 활용하는 가능성이 부상했다. 양자 알고리즘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실제 구현 기술이 발전하며 제2차 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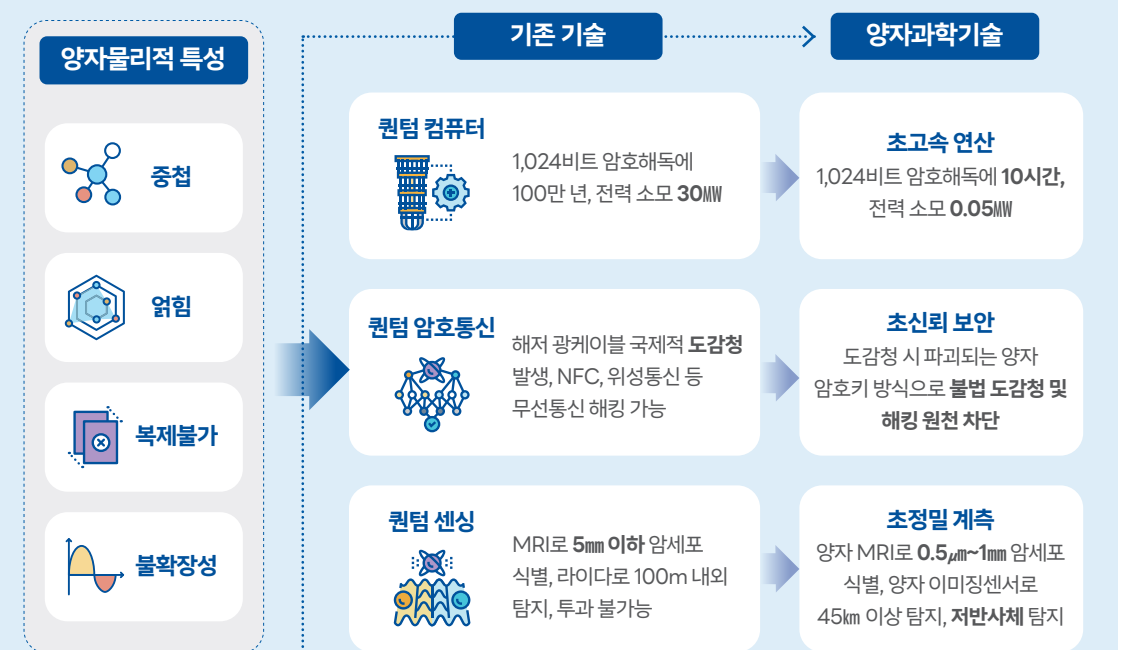
혁명이 본격화했다. 양자 정보의 생성·처리·전송이 가능해지며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새로운 응용 영역이 산업의 미래를 열고 있다.

양자기술이 여는 보안·연산·계측의 미래

양자컴퓨팅은 정보처리를 위해 기존 컴퓨터가 0과 1의 비트(bit)를 기본 단위로 연산하는 것과 달리 중첩·얽힘과 같은 양자역학적 원리에 기초한 큐비트(qubit)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큐비트를 활용하면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전통적인 슈퍼컴퓨터로는 수백, 수천 년 이상 걸릴 문제를 단기간에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현재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초전도, 중성원자, 이온트랩, 광자 등 다양한 방식의 양자컴퓨터가 개발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어떤 방식의 양자컴퓨터가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자컴퓨팅의 잠재력은 병렬계산과 최적화가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양자과학기술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24), '퀀텀 이니셔티브(안)', 4월 25일

필요한 영역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산업의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을 촉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양자컴퓨팅이 본격 상용화되면 제약·바이오산업에서는 임상 전 실험 단계에서 신약후보 물질을 빠르게 발굴할 수 있고 소재·화학산업에서는 전자구조 계산을 통한 신소재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서는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리스크 분석이 고도화돼 초고속·맞춤형 투자 전략이 가능해지고 제조업과 물류에서는 복잡한 공급망의 최적화가 실현될 수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와 정확도를 제고해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양자통신은 양자 상태의 중첩과 붕괴 같은 양자적 현상을 활용해 도청을 탐지함으로써 기존 암호화 기술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절대적 보안성

을 확보하는 새로운 통신 기술이다.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방식인 양자키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는 1980년대에 이미 이론적 가능성이 제기됐고 양자 상태 제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 빠른 상용화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양자통신 기술은 향후 단순한 QKD 응용을 넘어 인공위성, 광섬유, 중계 노드를 연계해 전 지구적 규모에서 양자정보를 전송·공유하는 양자인터넷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통신, 양자인터넷의 상용화는 곧 초보안 네트워크의 구현을 뜻한다. 이를 통해 군사·외교·금융과 같이 보안이 핵심인 분야에서 안보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금융 거래, 의료 데이터, 지적재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성을 갖춘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 또한 양자통신 기술은 분산형 양자컴

퓨팅, 양자센서 네트워크와도 긴밀히 연계돼 차세대 응용 생태계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센싱은 원자나 이온, 초전도체, 다이아몬드 내 질소-공석 결함(NV center) 등 양자계가 외부 물리량(자기장, 전기장, 중력 등)의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활용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초고감도·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한 정밀 측정은 생명·의료, 군사·안보, 지구환경 탐사, 우주·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다.

글로벌 원톱 주도권을 향한 주요국의 전쟁

미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양자기술 관련 법안인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NQI) 법」을 제정해 글로벌 양자기술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2022년에는 「반도체와 과학법」을 제정하고 양자기술을 경제안보와 관련된 핵심기술로 포함했고 이후 양자기술 관련 장비 및 부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추적하면서 대외 투자 제한과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 양자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양자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양자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막대한 투자와 자국 중심의 양자 역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양자기술 전반을 종합하는 대규모 이니셔티브인 양자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2023년에는 범유럽 양자생태계 구축을 위한 EU 양자기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일본은 2020년 양자기술 혁신전략 수립 이후 중장기적 관점의 도전적·파괴적 혁신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 또한 기술 역량 확보와 민관 협력에 기반한 상용화 촉진을 위한

국가 양자전략을 발표했다.

양자 생태계,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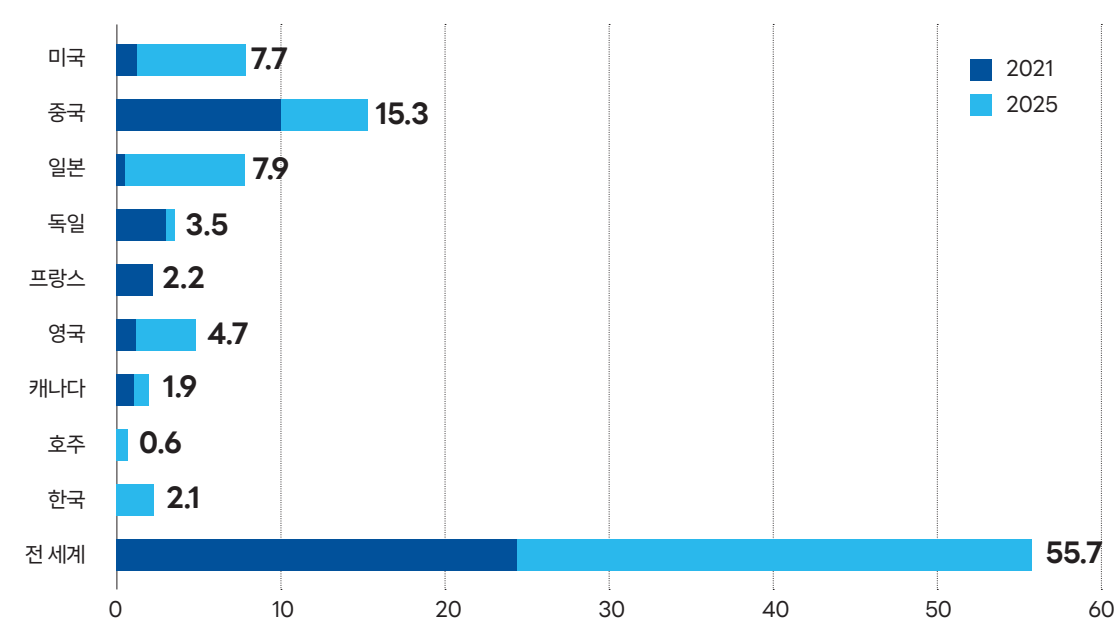
한국은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에 비해 기술 역량, 공공투자 규모, 생태계 성숙도 등 여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에게서는 단순한 추격형 전략을 넘어 우리만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주요국과는 차별화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기업과 산업은 양자 산업 활성화 기술을 포함한 넓은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양자기술의 구현에는 큐비트 생성 및 상태 유지를 위한 냉각 기술, 극저온에서 동작하는 반도체, 소자 제작을 위한 반도체 공정 기술 등 다층적인 활성화 기술이 필요하다. 즉 양자 생태계는 양자기술 구현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등이 기존 산업기술과 복합적으로 연계돼 구성되며 이에 따라 양자기술의 본격적인 상용화 과정에서 활성화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의 역할은 확대될 것이다. 즉 양자산업의 기회는 당장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정부는 기업들이 양자 생태계에 조기 편입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과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자기술은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경제적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기술의 상용화는 기업, 대학, 연구소들만으로는 해낼 수 없으며 초창기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연구개발 지원정책 프레임워크를 넘어 도전적·파괴적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체계를 마련하면서 산학연 전반에 우수한 양자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근본적 대책이 병행될 때 양자기술의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다. 

2021년, 2025년 주요국 양자기술 공공투자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Qureca, Quantum Initiatives Worldwide 2021, 2025 재구성

The value chain in detail

The diagram illustrates the quantum computing value chain, divided into several key stages:

- Design & Fabrication:**
 - Design software** feeds into **Quantum chip design**.
 - Quantum chip design** leads to **Wafer-level device fabrication**.
 - Materials growth** (involving material inspection, epitaxy, interlayer, etc.) feeds into **Wafer-level device fabrication**.
 - Wafer-level device fabrication** leads to **Selected devices**.
- Device Characterization:**
 - Selected devices** lead to **Qubit characterization**.
 - Qubit characterization** involves 10 - 20 mK Qubit material, readout, manipulation, and state readout.
- Quantum Computing Stack Integration:**
 - Qubit characterization** feeds into **Quantum computing stack integration**.
 - Quantum computing stack integration** leads to **Control environment** (shielding, cryogenics, vacuum).
 - Control environment** leads to **Control hardware** and **Control software**.
 - Control hardware** and **Control software** lead to **Cabling & the signal processing + MNA (TWPA, HEMT, etc.)**.
- End User:**
 - Cabling & the signal processing + MNA (TWPA, HEMT, etc.)** feeds into the **End user**.

Material growth and metrology (material inspection and device characterization) is a foundational stage that feeds into both **Quantum chip design** and **Wafer-level device fabrication**.

Equipment is shown as a foundational stage that feeds into **Materials growth** and **Wafer-level device fabr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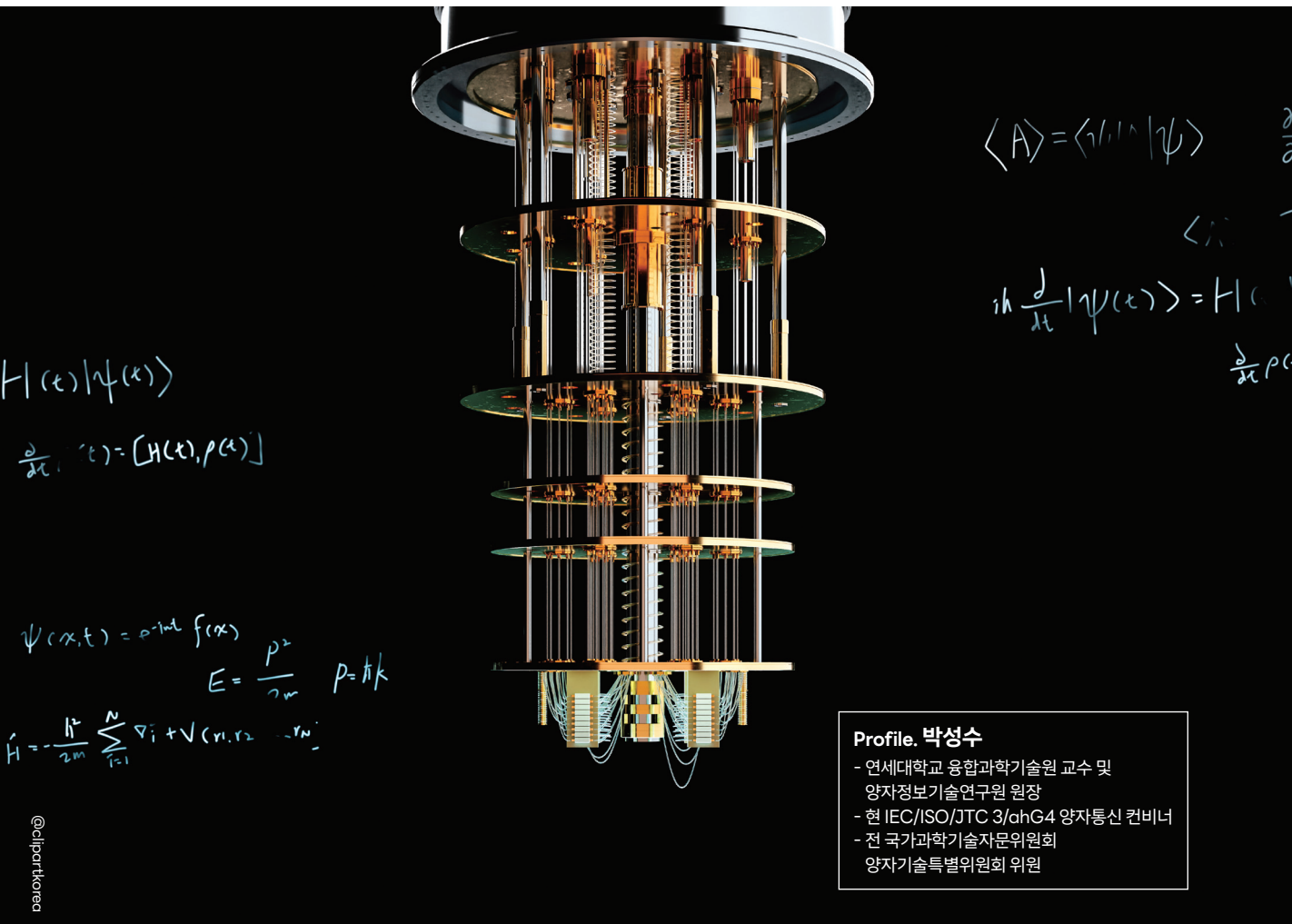
Quantum computing stack integration is noted as a **full-stack** integration.

End user is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value chain.

Legend: ■ = everest, ■ = micron value chain

퀀텀 코리아 2025 콘퍼런스에서 발표자가 양자컴퓨팅 밸류 체인의 주요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큐비트 성능 향상, 패키징, 제어 기술 등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주로 반도체, 전기전자, SW 등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 따라서 양자기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구현하고 완성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양자 분야 기업, 학교, 학회의 협의체인 QED-C가 발표한 2020년도 미국 양자 기업의 인력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19개의 일자리로 분류됐고 그중 7개가 양자기술 분야였다. 슈퍼컴퓨터나 양자컴퓨터를 사용해 직접적인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양자 계산의 기초적인 기술 습득이 중요한 시점이고 기존 기업들의 역량에 따라 양자 분야로 진출도 당장 가능하다. 소재, 부품, 장비 등이 대표적이다. 초전도 큐비트는 극저온에서 동작하는 수 GHz급의 RF회로이므로 극저온용 RF커넥터, RF케이블, 필터, 서큘레이터, 증폭기 등이 대략 큐비트 개수



만큼 사용되고 있고 극저온냉동기를 비롯해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온트랩, 중성원자, 광학큐비트에는 모두 레이저 및 광학 부품이 사용된다. 이들 소부장을 양자기술이라고 하지 않지만 양자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다. 실제 양자컴퓨터 연구자들은 소부장의 중요성과 국산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QX 시대를 대비하는 기업의 조건

DX(디지털 전환)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듯 양자기술 도입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QX(Quantum Transformation)’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10년 이내에는 ‘QX’라는 개념이 산업 전반에서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그 시점에 서둘러 대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전 세계는 양자기술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국내

에서는 2032년까지 양자 전공 박사 500여 명을 졸업시키기 위해 고려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의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양자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을 비롯한 국내 대학들이 양자정보학·공학·지능·융합 전공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자기술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22년 설립된 한국양자정보학회는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양자정보과학 여름·겨울학교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 사례가 이어질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타 분야의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하는 양자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비록 현재는 양자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포털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기업의 준비를 뒷받침할 교육 기회와 전문 인력은 향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연세

2020년도 미국 양자 기업 채용공고 분석

일자리	일자리 세부 분야	채용 규모(명)
양자 분야	전산화학자	90
	에러정정과학자	
	이론물리학자	
양자 분야	포토닉스/광학 엔지니어/과학자	90
	응용/솔루션 아키텍트	
	양자알고리즘 개발자	
양자 분야	실험물리학자	90
	SW 개발 운영 및 DB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전산 분야	SW개발자	50
	제어시스템 엔지니어	
	극저온 엔지니어/과학자	
전기전자	시스템 조립/유지보수 기술자	80
	소자/부품 엔지니어	
	회로설계 엔지니어	
전기전자	테스트/측정 엔지니어	80
	시스템 아키텍트/디자이너	
	기술지원 및 마케팅	
판매/마케팅	제품 판매 및 마케팅	30
	기술지원 및 마케팅	
	제품 판매 및 마케팅	

자료 arXiv:2109.03601v1 [physics.ed-ph], 2021년 8월 25일

양자컴퓨터 성능평가 기술 개발 현황

국가	기관	기술명	비고
미국	IBM	Quantum Volume	신뢰성 있는 계산의 최대 큐비트 및 최대 연산횟수의 곱으로 표현함
		Circuit Layer Ops/Second (CLOPS)	매개변수 모델 기반 계산 속도 측정
	샌디아랩	Mirror Circuits	순차 및 역순의 양자 계산 수행 능력 측정
	UC버클리	Quantum LINPACK	미리 정해진 선형대수의 계산 성능 측정
	QED-C	App-Oriented Suite	양자 알고리즘 수행 성능평가
독일	프라운호퍼	BenchQC	양자 기계학습, 물리 시뮬레이션, 조합 최적화 측정
프랑스	LNE	BACQ	최적화, 연립방정식, 물리 시뮬레이션, 인수분해 측정
	Atos	Q-Score	최적화 문제(MAXCUT) 풀이 능력 측정
네덜란드	TNO	TNO project	Q-Score의 연장선으로 하드웨어 및 응용 SW 측정
	델프트공대	QPack	QAOA, VQE 관련 성능측정
EU	12개국	Qu-Test	HW 특성 측정·시험 기술에 대한 EU 공통 기술 개발

자료 박성수

대학교에 127큐비트 IBM 초전도 양자컴퓨터가, 2025년 충북대학교에 5큐비트 IQM 초전도 양자컴퓨터가 설치돼 연구개발과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KISTI에 50큐비트급 IonQ 양자컴퓨터가 도입될 예정이며 Pasqal의 중성원자 양자컴퓨터와 D-Wave의 양자 어닐러 등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려는 벤처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양자컴퓨터는 더 이상 막연한 ‘꿈의 컴퓨터’가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년 1월 미국 인실리코메디신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110만 개 약물 데이터에서 양자컴퓨터를 사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1만 배 이상 빨리 15개 항암 신약후보물질을 찾아내고 실험을 거쳐 2개 신약 물질을 골라냈다. 과거에는 성능 제약으로 실질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지만 100큐비트 이상 규모의 양자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다양한 문제에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양자컴퓨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현실적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QX의 물결은 10년 안에 본격화될 것이며 늦게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야말로 기업이 양자기술을 이해하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며 필요한 인재와 역량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기업에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양자기술 선진국에 뒤처진 한국 틈새 전략과 제조·센싱이 돌파구

양자기술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 국가는 산업 전략 차원에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스타트업을 키우며 상용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내 양자기술은 아직 기초연구와 산업화 사이에 간극이 있어 생태계 조성과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국내 양자기술의 현주소와 산업화 가능성, 중소·벤처기업이 이 흐름에 뛰어들기 위한 기회와 과제를 짚었다.



황용식 진행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재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특임연구원



윤지원

SDT 대표



최호진

DBR 기자

좌담 내용은 좌장 및 패널의 개인 의견이며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우리나라 양자기술 수준은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또한 기초연구 성과와 산업화 준비 단계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어떻게 보는가?

최호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글로벌 R&D 전략 지도’에 따르면 한국의 양자통신 표준화 점수는 2.9점으로 미국·중국(약 90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양자 중계기와 센서 등 핵심기술에서도 격차가 크지만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주도적 방식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윤지원 양자컴퓨팅 분야만 놓고 보면 아직 글로벌 경쟁에서 두드러진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요 선도 기업·기관과 비교했을 때 우리 참여가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를 주는 단계는 아니다. 양자통신 분야는 장기간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방 속도가 더뎠다.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초연구 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산업화 기회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QPU나 알고리즘은 기초연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지만 다른 산업화 영역에서는 여전히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기회가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일이다.

김재완 전적으로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양자기술을 연구할 기초과학과 공학 수준을 이미 상당히 확보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무관심과 늦은 정책 대응으로 뒤쳐진 측면이 크다. 다만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고 학계와 출연연구소도 이에 발맞추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을 위해 양자기술의 기초연구와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지원

해야 할 영역과 연구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김재완 양자통신은 국내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업화와 표준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양자센싱 분야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역이다. 다양한 센서에 양자기술을 접목하면 전반적인 양자기술 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호진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공정 기술과 제조 역량을 활용해 큐비트 소자 영역, 전자 제어 시스템을 위한 부품 및 장비, 광통신 인프라 기반의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한국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해 양자기술 구현에 필요한 초정밀 부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역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양자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국내 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대비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호진 양자컴퓨터의 발달은 기존 공개키 암호를 무력화해 디지털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암호화된 데이터를 먼저 탈취한 뒤 미래에 양자컴퓨터로 해독하는 HNDL(Harvest Now Decrypt Later)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양자내성암호(PQC)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양자컴퓨터가 적국에 넘어가면 공개키 암호로 보호된 비밀키와 정보가 모두 유출될 것”이라 경고하며 이에 대비해 PQC 알고리즘을 준비해왔다. 우리 역시 양자컴퓨터 상용화 이전에 PQC를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김재완 세계적으로 연구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럽과 미국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글

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 인재가 쉽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입국·비자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국제 공동연구와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윤지원 국가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며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해외 주요 기업들도 자국 내에서 모든 양자장비를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강점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 산업이 초기 단계인 지금은 모든 기업을 지원하기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같은 정책적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국내외 유망 중소·벤처기업 사례 가운데 양자기술을 활용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윤지원 우리 SDT는 해외 기업 및 기관과 합자회사 형태로 협력하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초전도 QPU 기업과는 양자컴퓨터의 전체 제조를 한국에서 수행하는 모델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영 기업과는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협력해 SDT가 제조한 양자 장비를 현지 파트너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한 채 공급하는 맞춤형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방산 기업과도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확대 중이다. 이러한 방식은 원천 기업의 지식재산권(IP)과 브랜드를 존중하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조 역량을 제공해 함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최호진 캐나다의 양자컴퓨팅 기업 디웨이브(D-Wave)는 폴크스바겐과 BMW의 공급망을 최적

국내 기업들은 ‘양자’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느껴져 접근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고도화해 양자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화하고, 패티슨푸드그룹(PFG)에는 배송 기사 스케줄링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해 주간 업무 시간을 80%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양자 어닐링 기술은 복잡한 조합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한편 아이온큐(IonQ), 큐에라(QuEra), 아톰 컴퓨팅(Atom Computing) 등 스타트업은 초전도 방식과 달리 이온트랩·중성원자 플랫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재완 핀란드는 초전도 양자컴퓨터용 냉각기 시장의 95%를 점유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자신들이 보유한 전문 기술이 양자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양자’라는 단어가 거창하게 느껴져 접근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양자 기술은 전혀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기술적 기반 위에서 발전하는 것이므로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고도화해 양자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어떤 형태의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가?

김재완 앞서 언급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전략 차원에서 양자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투자를 시작한 만큼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다만 한정된 자원을 여러 집단에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자기술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하드웨어 분야는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투자해야 하며 이론이나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분야는 시공간적 제약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지원 현재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우리는 중국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중국이 생산 거점을 독점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기회가 열렸다. 아울러 승산이 낮은 분야에 무리하기보다 강점을 가진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 역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과감하게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최호진 한국의 양자 커뮤니티는 아직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융합이 필요하다. 유럽처럼 여러 국가가 협력하는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일본·미국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
한국의 양자 커뮤니티는 아직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융합이 필요하다. 유럽처럼 여러 국가가 협력하는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일본·미국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



야 한다. 반도체 공정 기술과 KAIST의 광학 연구 같은 강점을 활용하면 해외 연구팀과의 협력, 인재 교류, 커뮤니티 형성이 원활해질 수 있다. 양자 기술은 초기 단계이므로 글로벌 커뮤니티가 함께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며 IBM 퀀텀 네트워크 같은 협력 모델에 주목해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호진 큐비트 안정화, 극저온 유지, 오류 정정

등 핵심 원천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유의미한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상업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양자기술은 일상적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기에 실질적 비즈니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양자컴퓨터 개발 기업과 사용자 기업 간의 도메인 지식 격차를 줄이고 문제 제시와 기술 제공을 기반으로 한 협력 연구가 필요하다.

윤지원 각 국가·기업·기관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집중할 기회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다. 과학자들의 조언과 비전을 경청하되 냉정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한다. 과학적 성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향후 5~10년 내 어떤 분야에서 산업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가?

윤지원 우리의 기회는 결국 초정밀 제조 역량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과 EU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제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가능하며 이 제조 기반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선진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분야도 제조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면 양자 산업은 물론 다른 첨단 산업에서도 협상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김재완 양자센싱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동시에 양자기술 전반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적극적인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양자 인터커넥트 기술은 양자컴퓨터 확장은 물론 양자인터넷이나 양자센싱망 등에도 응용될 수 있다. 아직 연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해 선도적 위치

“
미국과 EU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제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가능하며 이 제조 기반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호진 반도체, 전자, 통신 인프라 등에서의 강점을 토대로 국제 민주주의 진영의 양자 생태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자컴퓨터 밸류체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광학 부품과 같은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다면 미국과 유럽 등의 주요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욕실 자재 전문기업 (주)대명엔컴

세대 잇는 경영, 맞춤 제작으로 시장 선도

‘정직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주)대명엔컴.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 이 기업은 세대를 잇는 경영으로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신뢰와 혁신을 동시에 지향하며 더 나은 공간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주)대명엔컴 송영식 대표

(주)대명엔컴 송명용 이사

신뢰와 전문성, 현장에서 쌓아 올린 가치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 놓았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공간을 쾌적하고 개성 있게 꾸미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나만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테리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고 특히 욕실과 주방은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으로 재조명됐다. 타일의 질감과 색감, 수전(手掬)의 디자인과 기능, 위생도기의 품질은 생활의 품격과 직결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기능성과 심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자재 선택은 곧 공간의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이 됐다.

특히 코로나 이후 ‘홈카페’ ‘홈spa’와 같은 키워드가 유행하며 욕실은 단순히 위생 공간이 아니라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욕실 인테리어는 주거 트렌드의 척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고 소비자들은 자재의 질과 브랜드, 차별화된 디자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욕실 자재 전문기업 (주)대명엔컴은 한발 앞서 시장의 변화를 읽어왔다. 1990년 ‘대명타일상사’로 출발해 2008년 법인 전환, 2011년 현재의 사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까지 회사의 정체성은 언제나 ‘정직한 자재, 책임 있는 납품’이라는 철학 위에 세워졌다. 단순한 유통을 넘어 고객의 생활 공간 전반을 제안하는 파트너로 자리 매김하며 시공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했다.

(주)대명엔컴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에 있다.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고급 타일, 위생도기, 수전류, 욕실장, 욕조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전문 유통하며 자체 가공 설비를 갖춰 맞춤형 제작까지 가능하게 했다. 특히 대형화되는 타일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정밀 가공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설계 유연성과 시공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다. 고객의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하는 이 같은 서비스는 단순한 납품을 넘어 공간의 가치를 함께 완성하는 과정이다.

더 나아가 (주)대명엔컴은 단순히 ‘좋은 자재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멈추지 않고 ‘생활의 가치를 제안하는 기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 소비자가 직접 쇼룸을 방문해 자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설계

DM1100
피아노수전MG



66

**친환경·스마트 욕실 솔루션 등
미래지향적인 제품군을 확대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99

단계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일반 소비자보다도 긴밀히 소통하는 새로운 시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욕실 인테리어는 기능적 만족을 넘어 감성적 만족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주)대명엔컴은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 감각을 살린 자재를 선보이고 친환경·스마트 욕실 솔루션 등 미래지향적 제품군 확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세대를 잇는 경영, 도전에서 혁신으로

(주)대명엔컴의 출발점은 1세대 송영식 대표의 도전이었다. 과거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군대 인연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 인천의 7평 남짓한 작은 점포에서 ‘대명타일상사’를 시작했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던 중학교 후배와의 만남이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작은 납품에서 시작한 거래는 차츰 늘어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영업은 기업의 초석을 다졌다.

송영식 대표가 1990년 창립 당시의 ‘대명타일상사’부터 2025년 지금의 (주)대명엔컴까지의 역사를 회상하며 말했다. “제가 대명타일상사의 기반을 다졌다면 송명용 이사가 지금의 (주)대명엔컴을 만들었죠.” 기업의 성장은 2세대 송명용 이사와 함께 본격화됐다. 송명용 이사는 창립



초기부터 아버지와 함께 현장을 누비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영업 최일선에서 치열하게 뛰며 수많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구축했고 단순 납품을 넘어 고객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외연을 넓혀왔다. 그의 이름은 곧 ‘현장에서 통하는 신뢰’로 기억되며 (주)대명엔컴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킨 주역이 됐다.

여기에 3세대 송기택 대표가 합류하며 새로운 변화가 더해졌다. 송기택 대표는 감각적인 기획력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주)대명엔컴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인테리어 트렌드와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1층에 직접 운영하는 쇼룸 ‘여기가 우리집’을 통해 고객이 자재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NS·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기반의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세 세대의 협력은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경영 체계로 이어졌다. 창업주의 개척 정신, 2세대의 현장 경험, 3세대의 감각적 전략이 어우러져 (주)대명엔컴은 오늘도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미토 사각 일체형 세면대
ML-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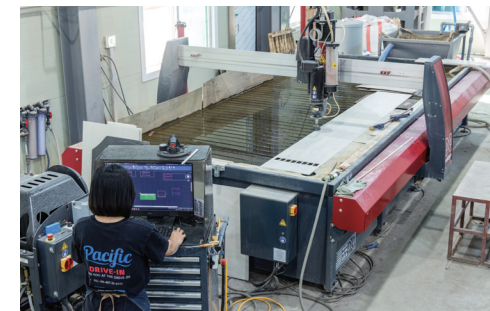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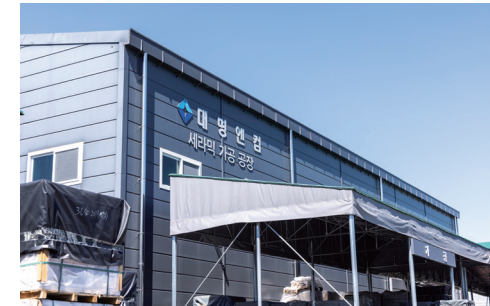
맞춤 제작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대명엔컴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테리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자재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객이 원하는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제작과 맞춤형 생산 방식을 도입한 것이 (주)대명엔컴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특히 별도의 타일 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이즈와 텍스처,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 이에 고객이 요구하는 정밀한 주문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최근 타일은 대형화되고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의 정밀 가공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대명엔컴은 일찍이 고가의 가공 장비를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이러한 시장 변화를 선도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설계 단계부터 시공,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건설사·인테리어 업체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확실한 신뢰를 주고 있다.

또한 (주)대명엔컴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강화와 프리미엄 브랜드 협업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친환경·스마트 욕실 솔루션 등 미래지향적인 제품군을 확대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고자 해요.” 송영식 대표와 송명용 이사가 대명엔컴의 미래를 향해 포부를 밝혔다. 특히 쇼룸 운영과 함께 온라인몰을 연계해 자재를 추천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으며 친환경 건축자재 브랜드와의 협업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이다. 설계·유통·시공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신흥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주)대명엔컴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주)대명엔컴이 지향하는 길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다. 시대와 함께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



START-UP

IBK 창공 육성기업

인네이처 • 딜리버리랩 • (주)에이비알 • 컨포트랩 • 아이디어스투스실리콘 • 뉴로팩



스마트필름으로 에너지 절감 실현

인네이처 한세진 대표

- ◎ **주요 기술** 투명전도성 ITO 필름 기술, 물 기반 외피 기술(Muldori-Wall) 등
- ◎ **주요 제품** CHB(발열 변색 스마트필름), 하이배리어 필름 등
- ◎ **홈페이지** www.in-nature.kr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유리창은 단열 성능이 낮아 전체 냉·난방 에너지 손실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취약 지점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절실하다. 인네이처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스마트필름 전문 기업이다. 고투과·고차폐 성능을 갖춘 투명전도성 ITO 필름을 자체 개발해 양산하며 이를 기반으로 발열 변색 스마트필름(CHB)과 전기 변색 필름(EC) 등의 고기능 제품을 상용화했다. 특히 CHB 필름은 외부 온도나 전력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투명도와 차광 수준을 조절할 수 있으며 무전력 상태에서도 투명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PDLC, SPD 방식의 스마트윈도 기술을

뛰어넘는다.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스마트빌딩 확산, 고에너지 비용 시대는 이러한 고성능 스마트필름의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인네이처는 이에 발맞춰 CHB-EC 하이브리드 필름 개발도 병행 중이다. 이 제품은 열차단율을 90% 이상 개선하고 모빌리티와 건축 외피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 고부가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인네이처는 CES 2025 혁신상,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 은메달 등을 수상했으며 미국 시애틀 및 힐스보로 스마트시티 PoC 프로젝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의 공동 R&D 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DELIVERY LAB 식자재 유통의 디지털 혁신 이끄는 플랫폼

딜리버리랩 이원석 대표

- ◎ **주요 기술** 도심형 MFC 기반 물류 자동화 기술, 운송 관제 및 클레임 관리 시스템, 주문·배송·정산 연동 플랫폼
- ◎ **주요 제품** 오더히어로(OrderHero), B2B SaaS 연동 API, 실시간 운송 대시보드
- ◎ **홈페이지** www.orderhero.co.kr

이원석 대표는 외식 식자재 유통 시장의 비효율적인 구조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외식업 창업 경험

과 LG CNS 출신의 IT 역량을 바탕으로 식자재 유통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플랫폼을 구상했고 그 결과 딜리버리랩의 핵심 서비스인 ‘오더히어로(OrderHero)’가 탄생했다. ‘오더히어로’는 외식업체와 중소 식자재 유통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주문, 피킹, 배송, 클레임, 정산 등 전 과정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관리한다. 도심형 초소형 물류센터(MFC)를 거점으로 실시간 배송 관제와 디지털 피킹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서울 성수동에서의 실증을 통해 검증은 마쳤으며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장 중이다. 기술 측면에서도 딜리버리랩은 물류 자동화, 데이터 분석, SaaS 기반 설계 등 다양한 역량을 내재화했다. 자체 개발한 디지털 피킹 지시 시스템, 배송 지시·관제 시스템, 정산 및 클레임 연동 API는 유통사의 고유한 운영 방식과도 쉽게 통합된다. 딜리버리랩은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와 지역 확장을 추진 중이다. 향후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대상의 통합 발주·정산 시스템, 유통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 알고리즘, 도심형 공동 풀 운영 등을 통해 식자재 유통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50% 저렴한 양극재로 캐즘 탈출 방법 제시

(주)에이비알 김유탉 대표

- ◎ **주요 기술** 양극재 유통 비용 절약하는 친환경 기술
- ◎ **주요 제품** 직접재활용 통한 양극재 생산
- ◎ **홈페이지** www.adbatteryrecyc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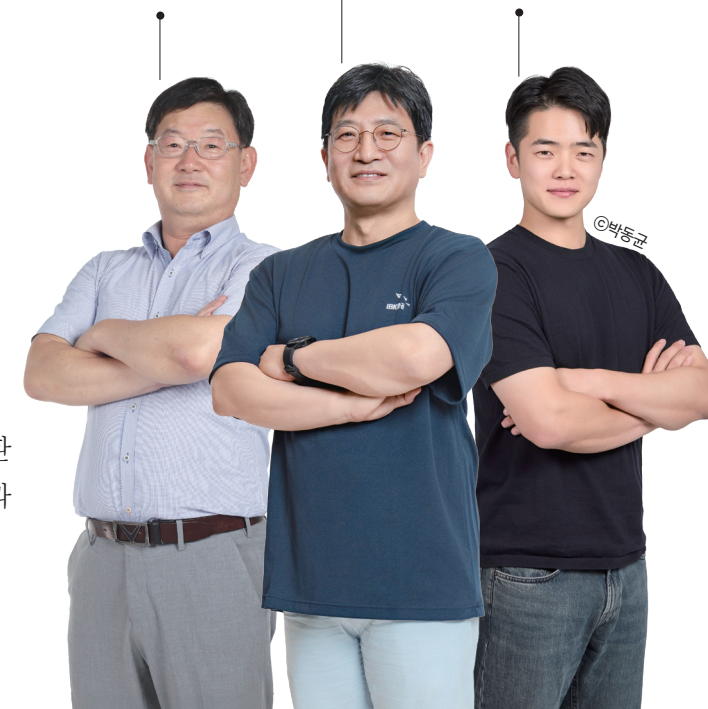
(주)에이비알은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에서 친환경 직접 재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배터리의 전 과

정을 순환 경제 체계 속에 포함하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전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를 고려한 재제조·재사용 기술을 통해 단순 폐기에 머물던 배터리 공정스크랩을 다시 산업 자원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주)에이비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특허와 인증 체계 구축을 수립했으며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광양과 순천, 안양, 나주 등에 사업장과 연구소를 운영하며 생산·R&D·소재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주)에이비알의 가장 큰 강점은 기술의 적용성과 확장성에 있다. ‘직접 재활용’ 공정은 전처리·금속추출·재합성 과정을 간소화해 비용 절감과 환경 부담 완화를 동시에 낮춘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재활용 소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인네이처
한세진 대표

(주)에이비알
김유탉 대표

딜리버리랩
이원석 대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하는 혁신 파트너

컨포트랩 김기중 대표

- ◎ **주요 기술** AI 자동 보고 시스템(PORTA), 실시간 통합 관제 모니터링, 스마트공장 맞춤형 로드맵 설계
- ◎ **주요 제품** PORTA 플랫폼, Onepass 스마트공장 정부지원사업 프로그램
- ◎ **홈페이지** www.conportlab.com

컨포트랩은 AI 기반 스마트공장 플랫폼 ‘PORTA’를 중심으로 기업의 스마트AI공장 구축을 윈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 기업이다. PORTA는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자동 보고서를 생성하며 통합 관제 AI모니터링을 통해 설비와 공정의 이상 징후를 신속히 감지한다. 더불어 품질 이력 AI 추적 기능을 통해 클레임 발생 시 생산 조건과 품질 데이터를 즉시 추적·분석할 수 있어 기업은 예방적 관리와 효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 팔란티어 파운드리와 유사한 기술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복잡한 데이터 표현 계층을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 도구를 제공해 중소기업도 활용 가능한 AX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컨포트랩은 ‘OnePass 스마트공장 정부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스마트공장 수준 진단, 사업계획 수립, 평가 준비, 현장 실사까지 밀착 지원하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약한 기업들도 쉽게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정 이후에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과 2년간 무상 AS, 후속 자문까지 이어져 기업이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컨포트랩의 강점은 현장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단일 환경

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맞춤형 접근이다. 이는 기업의 현황과 목표에 맞춰 불필요한 비용과 과도한 시스템 투입을 줄이고 최적의 시스템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단계별로 쉽게 확장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 중복 투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IDEAS 2 SILICON

에지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파트너

아이디어스투실리콘 샘 킴(Sam Kim) 대표

- ◎ **주요 기술**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IP 기술, AI SoC 연산 구조 ‘NN2.0’ 등
- ◎ **주요 제품**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양산, SERAPHIM 설계 자동화 플랫폼, 다양한 설계자산(IP) 등
- ◎ **홈페이지** www.ideas2silicon.com

SoC 설계의 복잡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메모리 인터페이스, 고속 통신, AI 연산 등의 핵심 기능이 하나의 칩 안에서 통합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전문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이디어스투실리콘은 이러한 기술 전환기에 주목받는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이다. 미국 유니쿼화이의 검증된 기술력과 인력 기반으로 한국에 출범한 기업으로 설계 자동화 플랫폼 ‘세라핌’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시스템반도체 및 IP를 제공한다. 세라핌 플랫폼은 설계 구조 표준화와 자동화된 분석 기능을 통해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실시간 웹 인터페이스로 협업과 검증 효율을 높인다. AI SoC 전용 연산 구조 ‘NN2.0’도 주목할 기술이

다. 기존의 곱셈 누산(MAC) 방식 대신 시프트 연산으로 대체해 전력 소비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연산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에지 디바이스용 AI 칩 설계에 적합하다. 이를 통해 스마트 카메라, IoT 디바이스, 디지털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저전력 고성능 AI SoC 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이디어스투실리콘은 설계부터 테스트, 패키징, 양산까지 턴키 제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초고속 네트워크장비, SSD, 디스플레이, 포토닉스(광통신) 모듈, 가상화폐 채굴기,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설계·생산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았다.

NEURO PACK 식품 폐기 줄이고 환경 생각하는 포장 기술

뉴로팩 고의석 대표

- ◎ **주요 기술** 천연 향균·방담 기능성 코팅 기술, 생분해 멀칭필름 기술, 고차단성 코팅 필름 기술
- ◎ **주요 제품** 기능성 식품 포장재, 생분해 멀칭필름·봉투, 친환경 멸균팩·펄프 몰드 용기, 고차단성 파우치·용기
- ◎ **홈페이지** www.neuro-pack.com

식품 산업은 유통과정에서의 신선도 저하와 포장 폐기물 문제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해 설립된 기업이 바로 뉴로팩이다. 뉴로팩은 ‘식품은 버려지기 전에 먼저 보호돼야 한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기능성·친환경 포장재 기술을 개발·상용화하고 있다. 뉴로팩의 대표 기술은 천연 향균·방담 기능을 갖춘 신선식품 포장재, 수분과 산소 차단력이 우수한 고차단성 가공식품 포장재, 토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 멀칭필름이다. 천연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향균물질을 포장 필름

에 코팅해 병원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과일·채소 등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품에 따라 소비기한을 최대 50%까지 연장할 수 있어 식품 폐기량 감축에도 이바지한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멀칭필름도 일반 비닐 대신 60% 이상 생분해 성능을 갖춘 친환경 소재로 제작해 재배 이후 회수 과정 없이 자연분해돼 토양 오염을 줄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가공식품 포장재의 경우 고온 조리에도 견딜 수 있는 고차단성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가정간편식, 밀키트, 레토르트 제품 등에 활용도가 높다. 사업 성과도 입증되고 있다. 뉴로팩은 지난 몇 년간 120억 원 이상의 외부 자금을 유치했고 화성·영월에 자체 생산 공장을 구축해 연 5만 롤 이상 규모의 생분해 필름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고의석 대표는 “국내 농업과 식품 산업을 넘어 글로벌 지속가능 포장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



ALGORITHM



AI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 고객 니즈의 '맥락'을 읽어라

AI가 우리의 소비 경험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생성형 AI와 추천 알고리즘은 이제 단순히 '무엇을 살지'가 아니라 '어떤 순간을 경험할지'를 제안한다. 초개인화 마케팅은 제품·가격·프로모션을 넘어 생활 속 맥락과 감정까지 포착하며 기업과 고객의 만남을 새롭게 그려간다. AI 기반 초개인화 전략이 오늘날 마케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Profile. 차경진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경영정보전공 교수
- 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이사
- 전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
- <데이터로 경험을 디자인하라> 등

지난 8월 호에서 다룬 드롭 마케팅을 기억하는가? 슈프림이 매주 목요일 아침 한정판으로 만들어낸 '줄 서는 열광'의 이야기 말이다. 드롭 마케팅이 희소성과 우연성으로 '단 한 번의 순간'에 모든 고객을 집중시켰다면 AI 시대에는 각 고객에게 다른 '적절한 순간'을 설계하는 전략, 초개인화가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AI는 고객 행동, 후기, 상황 신호를 읽어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했던 규모의 맞춤 문구를 실시간으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마케팅은 제품·가격·유통·프로모션의 조합을 넘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맥락으로 말할 것인가'라는 경험 설계로 확장된다. 드롭이 '순간의 가치'를 키웠다면 초개인화는 고객의 '맥락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다.

1%의 천장을 뚫은 문구 초개인화

"고객님께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매일 쏟아지는 마케팅 메시지를 살펴보면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0% 할인, 마지막 기회!' 'VIP 고객님만을 위한 특가!' '지금 주문하면 무료 배송!'처럼 뻔한 문구들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 개인화라고 하지만 기껏해야 고객의 이름 정도만 바뀔 뿐 메시지의 핵심은 모두에게 같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할인 경쟁의 악순환이다. 경쟁사가 30% 할인을 하면 우리는 35%를, 상대가 무료 배송을 하면 우리는 당일 배송을 내세운다. 결국 마진은 깎여나가고 고객들은 할인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는 '체리피킹' 행동에 길든다. 브랜드 가치는 실종되고 가격만이 유일한 차별화 요소가 돼 버렸다. 그 결과 퍼포먼스 마케팅의 응답률은 1% 내외에서 몇 년째 정체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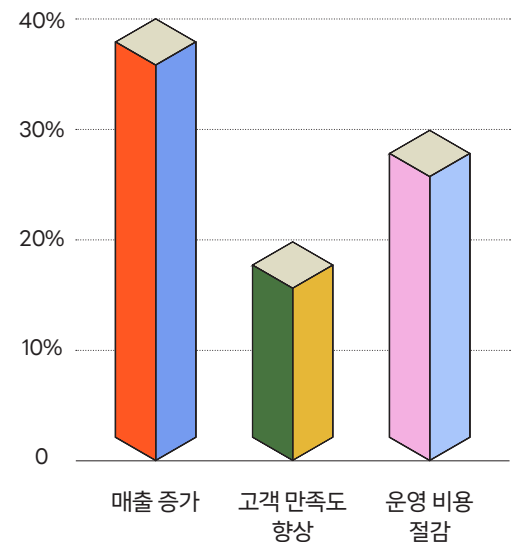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아모레퍼시픽이 이 '클릭의 천장'

을 뚫는 성과를 보여줬다. 한양대학교 경영정보학 연구팀과 함께 기존 고객데이터 관점을 정적에서 동적(시퀀스)으로 전환하고 제품 리뷰 임베딩과 구매 시퀀스를 결합해 고객의 '맥락'을 읽어냈다. 이어 26개의 구체적 페르소나('오직 메이크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색조 마니아' '럭셔리 지향 워킹맘' 등)를 도출하고 사람과 AI가 협업해 개개인에게 보낼 소구점을 정하고 LLM이 문구를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해당 문구로 접속 시 구매전환율, 발송 메시지당 매출, 순구매전환율 모두에서 성과가 나기 시작했지만 진짜 흥미로운 발견은 클릭, 구매 숫자가 아니라 퍼포먼스 마케팅에 있어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었다.

프로젝트 초기, 연구팀의 고민은 단순했다. '과연 AI가 사람만큼 잘할까?' 아모레퍼시픽의 400만

AI 도입 후 기업 성과 변화



자료: 맥킨지 글로벌 리포트 2024

고객을 위한 초개인화 문구를 매번 사람이 만들 수 없으니 AI가 최소한 사람 수준의 퀄리티로 대량 생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AI가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우월하지도, 사람이 모든 면에서 AI보다 뛰어나지도 않았다. 대신 마케팅 프로세스의 단계마다 승부가 갈렸다.

고객 이해와 소구점 발굴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직관과 경험이 AI를 앞섰다. ‘이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라는 질문에 사람이 더 예리한 답을 내놓았다. 반면 그 소구점을 바탕으로 수백, 수천 가지 변형 문구를 만드는 작업에서는 AI가 압도적이었다. 사람은 종일 고민해도 10개 만드는 게 힘든데 AI는 몇 초 만에 100개씩 쏟아냈다.

결국 ‘사람=소구점, LLM=문구’ 조합이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사람의 통찰력과 AI의 실행력이 만난 지점에서 최적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마케팅 프로세스 전반에서 인간과 AI의 협업 구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줬다.

‘카피’가 바뀌면 ‘경험’이 바뀐다

같은 제품, 같은 할인율이라도 어떤 말로 포장하느냐에 따라 고객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

‘레티놀 PDRN 앰플 33% 할인’이라는 문구를 받은 고객의 머릿속을 상상해보자. ‘아, 또 할인이네. 얼마나 할인하는지 보고 결정해야겠다.’ 전형적인 가격 비교 모드에 들어간다. 반면 ‘스킨케어 유목민을 위한 해결사’라는 문구를 받은 고객은 어떨까? ‘어? 나 정말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아직도 맞는 제품을 못 찾았거든.’ 순간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의 중요한 맥락 포인트로 받아들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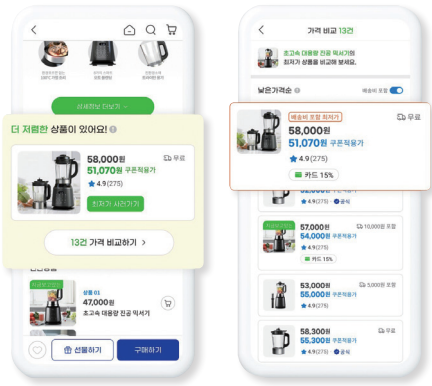
실제로 특정 세그먼트에서는 맥락형 문구가 가격형 문구를 압도했다. 같은 33% 할인이지만 전

“AI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 중소기업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 1단계** —— 고객을 지역, 나이, 성별과 같은 것으로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건 과거의 방식이다. 페르소나 중심 사고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때 ‘20대 여성 고객’이 아니라 ‘트렌드에 민감한 뷰티 얼리어답터’나 ‘가성비 중심 실속파’ 같은 구체적 페르소나로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 2단계** —— 맥락적 문구는 AI가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페르소나별 맞춤 문구를 대량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고객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라는 소구점 발굴은 여전히 고객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사람의 직관과 경험이 필요하다.
- 3단계** —— 고객의 데이터는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카드 데이터와 같은 외부 데이터 활용은 제품 타기팅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문구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고객이 ‘이 회사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접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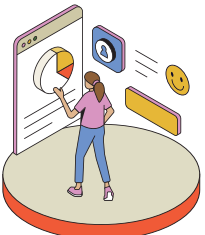
자료 차경진

G마켓 모바일앱 홈 화면 개인화 효과



G마켓은 상품 검색 시 최저가 제품을 우선 정렬해 보여주는 초개인화 기반의 가격비교 서비스를 도입했다. 배송비부터 고객이 적용 가능한 쿠폰적용까지 고려해 추천해 주는 기능이다.

개인화 후
40% 이상 증가



고객당 클릭 횟수

개인화 후
2배 이상 증가



클릭한 상품 수

자료 신세계그룹 뉴스룸

자는 ‘또 하나의 광고’로, 후자는 ‘나를 위한 맥락적 도움’으로 인식된 것이다.

더 흥미로운 건 고객별로 선호하는 ‘도움의 언어’가 달랐다는 점이다. 어떤 고객은 ‘트렌드에 민감한 당신을 위한’이라는 표현에, 또 다른 고객은 ‘바쁜 일상 속 간편 케어’라는 메시지에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즉 우리가 데이터 속에서 찾은 26개 페르소나마다 각각 다른 ‘공감 코드’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마케팅 패러다임과는 다르다. 과거 4P(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로 설명되던 마케팅 믹스는 이제 ‘누구의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로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경험 설계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품은 같지만 경험은 다르다. 가격은 같지만 가치는 다르게 느껴진다. 결국 초개인화 마케팅의 핵심은 우리 고객이 ‘광고’가 아닌 ‘맥락적 경험’으로 느끼게 만드는 순간, 퍼포먼스 마케팅의 1% 장벽은 무너질 수 있다.

각자의 순간을 만드는 시대

드롭 마케팅이 ‘기다림·희소성·우연성’으로 단 한 번의 열광을 설계했다면 초개인화는 고객마다 다른 맥락을 읽어 반복 가능한 적절한 순간을 만든다.

슈프림의 목요일 아침 11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했다. 하지만 초개인화의 순간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고객에게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또 다른 고객에게는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집에서. 각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고민, 그 순간의 맥락에 맞춰 도착하는 메시지가 된다.

결국 성과의 차이는 ‘할인 몇 %’가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말로(Right timing, Right Message, Right People)’에서 났다. 1%의 벽에 갇혀 있던 퍼포먼스 마케팅이 이제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맥락을 읽는 순간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됐다. 생성형 AI는 도구였을 뿐 진짜 변화를 만든 건 ‘이 고객(페르소나)이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는 질문이다. 🧠

대표와 회사 간 거래 세무 리스크 관리법

대표는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설비, 차량, 특허권 등 다양한 자산을 회사에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법상 요건과 절차를 소홀히 하면 세무조사와 가산세라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와 회사 간 자산 거래를 둘러싼 규정과 리스크, 이를 관리하는 현실적 해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대표와 회사 사이 자산 거래, 놓치면 위험한 세법 체크포인트 3선

1 특수관계 간의 거래가 부당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대표와 회사의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세법은 이 둘이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히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세법상 시가보다 5% (또는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거래하면 시가에 맞춰 세금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2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다.

대표와 회사의 거래 과정에서 대표의 자산이 회사의 주주에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세법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대표의 5억 원짜리 부동산을 회사에 1억 원에 양도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대표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시가에 맞춰 과세하는 한편 이익을 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대표와 주주가 일치하지 않을 것(예: 대표가 부친이고 주주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 ②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와와 차액이 3억 원 이상 날 것
- ③ 주주별로 증여받은 이익이 연간 1억 원 이상일 것

3 시가산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자산을 임대차하거나 거래할 때 시가는 통상 시장가격을 의미하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이를 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이에 대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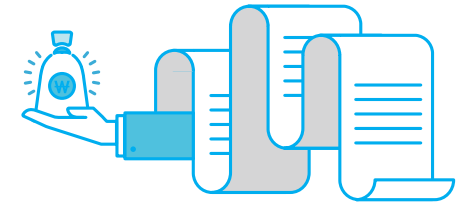
- ①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시가로 한다.
- ② 유사한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시가로 본다(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는 1개).

SUMMARY

항목	대표	회사
시가로 임대차/양도 시	세무상 쟁점 없음	세무상 쟁점 없음
저가로 임대차/양도 시	① 대표: 부당행위계산(시가로 과세)	① 회사: 규제 없음 ② 주주: 증여세 과세
고가로 임대차/양도 시	-	회사: 부당행위계산부인(초과분은 자산 감액, 초과분은 주주 배당세 과세)

현장에서 마주한 자산 거래의 실제 사례

- A 건물: 사무실이며 월 500만 원이 적정 임대료임.
- B 주택: 회사 근처에 소재하고 있음.
- C 특허권: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을 받음.
- D 미술품: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임.
- E 승용차: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임.



Q1. 회사가 A 건물을 임차할 때 월세 대신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가?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적정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이를 활용해 회사의 가지급금 상황에 쓰는 경우도 있다.

Q2. 회사가 B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이나 임원의 숙소로 제공하면 문제가 될까?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숙소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며 무상 또는 저가 이용 시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원(소액주주 제외)이 무상·저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

Q3. 회사가 C 특허권을 매수하면 문제는 없는가?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특허권의 시가를 입증해야 한다.

Q4. 회사가 D 미술품을 임차해 사무실에 전시하면 비용 처리할 수 있는가?

사무실, 복도 등에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은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임차료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단 시세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Q5. 회사가 E 승용차를 대표로부터 임차하면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가?

필요 없다. 리스·렌탈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운행 기록 작성 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료가 적정해야 하고 대표는 받은 임차료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제76회 희망중소기업포럼 개최 새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방향 집중 조명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76회 희망중소기업포럼이 열렸다.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정책의 방향과 현장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에는 중소기업 CEO, 정부 관계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모여 미래 산업 환경 속에서의 과제와 해법을 짚었다.

AI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방정식, ‘3S-Up 전략’ 제안으로 본 정책 기조

희망중소기업포럼은 2006년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대표적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경제계와 학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시대적 과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9월 5일 오전 7시, 조선 웨스틴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76회 포럼 역시 IBK기업은행,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정책적 무게감을 더했다.

이번 포럼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3S-Up 전략’을 내놓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스타트업(Start-up), 스마트업



배성환 (좌)진한 대표이사, 양희동 한국경영학회장,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대표 부이사장, 구윤철 부총리,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 노용석 중기부 차관, 김기배 (좌)대현철강 회장이 희망중소기업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영사 이후 주제발표를 경청하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노용석 중기부 차관이 주제 발표를 통해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mart-up), 스케일업(Scale-up)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단계적으로 설계한 접근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생존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벤처 투자 규모를 40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기금과 같은 장기 자금이 벤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간 자본과 정책자금이 함께 움직이는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

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정책 추진도 강조했다.

한편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곧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이들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복합적인 대내외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짚으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 ESG 경영, 인력난 해소 등 구조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한국 경제의 성장”이라며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포럼이 “이 자리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대안, IBK의 사명으로 이어지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장은 연구소가 실시한 정책 수요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는 고용·노동(37.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세제(28.0%), 기술·산업(17.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고용 지원(66.3%), 정년연장 및 장기 재직 지원(54.3%) 수요가 높게 나타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 역시 인력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졌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주제 강연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구인난 해소와 인력 정책 개선을 꼽았다. 노

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외국인 인력 도입 검토, 청년미래적금 도입,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과 복지바우처 신설 등을 제안하며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풀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30년까지 AI 스마트공장 1만 개 신규 구축과 기존 3만5,000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지원 계획을 내놓으며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결국 이번 포럼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권의 지원 전략, 현장의 현실적 요구가 한자리에서 논의됐다. 다양한 논의 끝에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과 금융, 산업 현장이 삼각 축을 이루는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지금 세계는:



ASML, 미스트랄AI 최대주주 등극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에 약 13억 유로(한화 약 2조 1100억 원)를 투자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이로써 미스트랄AI의 기업가치는 약 117억 유로(한화 약 18조 9,000억 원)로 평가되며 유럽 내에서 가장 가치 있는 AI 기업으로 부상한다. 이번 투자는 유럽의 AI 분야에서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국 연계 해커, 미 의원 사칭해 무역협상 개입 시도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무레나 의원을 사칭해 무역협상 과정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커들은 다수의 무역단체, 로펌, 정부기관 등에 공식 서한을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고, 여기에 '대중 제재 초안' 문서를 첨부해 열람 시 스파이웨어가 설치되도록 설계했다. 미국 정보·안보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사이버 공격을 넘어 국가 안보와 통상정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피해 범위와 배후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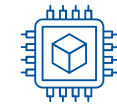
러 기업, 8년 만에 중국서 판다본드 추진



서방의 금융 제재로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이 차단된 러시아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본토에서 판다본드 발행을 추진 중이며 이는 2017년 알루미늄 기업 루살 이후 약 8년 만의 사례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립이 심화된 러시아가 중국 금융시장에 기대어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으로 미국의 역제재 가능성과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향후 성사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13만7,000배럴

석유수출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가 오는 10월부터 하루 13만7,000배럴을 추가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6, 7월의 하루 41만1,000배럴, 8, 9월의 55만 배럴보다 적은 규모이며 감산 조치 중단을 1년 앞당긴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이번 전략은 유가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며 4분기 수요 감소가 실제 증산 효과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승인제'를 제안했다. 해당 조치는 8월 29일 관보 게재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허가 대상은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소재의 정확한 수량을 명시해 승인받는 방식이다. 확장 또는 업그레이드용 장비는 제외되며 기업들은 운영은 보장되나 절차적 부담 증가와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Aaa→Aa1로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춘 'Aa1'로 조정했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이는 재정 적자 확대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미 의회의 예산 협상 지연, 선거 국면의 정책 불안정, 사회보장제도 지출 증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글로벌 자본 흐름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0달러

국제 은 가격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온스당 40달러 선을 돌파했다. 뉴욕 현물시장에서 은값은 장중 1.4% 상승해 40.29달러를 기록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정세 불안이 맞물리며 '안전자산' 선호가 한층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연준의 통화완화 압박, 은 관련 ETF 투자 확대 등이 작용한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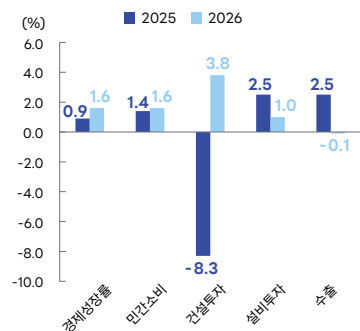
2.2%

일본의 올해 2분기(4~6월)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5% 성장해 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발표된 0.3%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로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냉방·외식 수요 증가가 소비를 끌어올린 결과다. 연율 환산 성장률은 2.2%에 달했지만 설비 투자와 수출 둔화로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내수 중심의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Korea

경제성장 전망



주 전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

한은, 올해 성장률 0.9%, 내년 1.6%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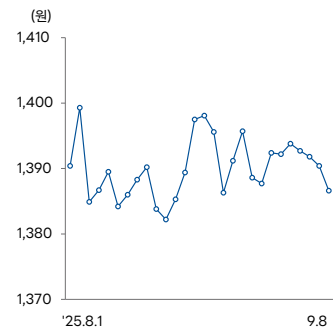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8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0.8%에서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① 2차 추경 및 경제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 활성화 기대 ② 예상보다 제한적인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성장률 상향 조정 요인인 반면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안정세 지속과 낮은 수요 압력에 따라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 내외의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2개월 연속 증가

7월 소매판매는 소비심리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행되면서 소매점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월 6.1% 증가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로 기간 부진했던 민간 소비 개선 조짐이 강화된 모습이다.

Exchange Rate

달러/원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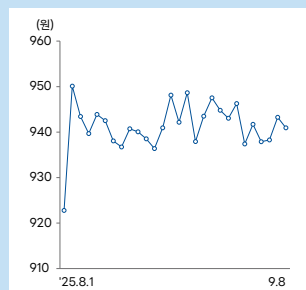
최근 환율은 1,300원 후반대에서 등락 (2025년 8월 18일 1,382.5원 → 9월 1일 1,387.7원 → 9월 10일 1,386.6원)

8월 달러/원 환율은 대선 직후 대거 유입된 외국인 증시 자금이 8월 순매도로 전환되며 8월 22일 1,398원까지 상승했다. 파월의 비둘기파 잭슨을 연설로 26일 1,386원까지 급락했으나 해외투자와 수입업체 결제 물량 등의 국내 수급이 환율 하단을 강하게 지지하며 28일 1,395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미 고용지표 악화에 따라 9월 FOMC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며 달러/원 환율도 1,380원대로 약세 전환됐다.

2025년 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366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22개사)의 2025년 4분기 말 달러/원 환율 전망은 평균 1,366원(최고 1,440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1,380원' 이상으로 전망한 IB가 7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5.8.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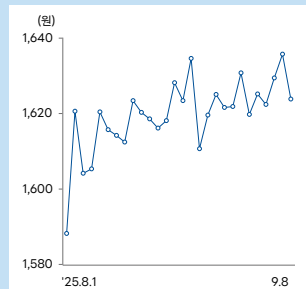
원/100엔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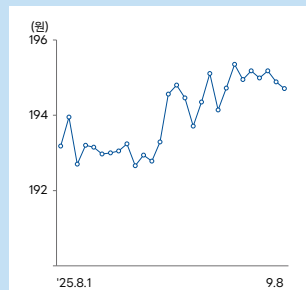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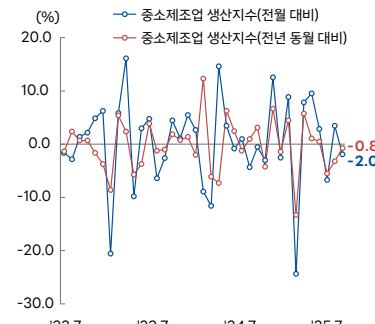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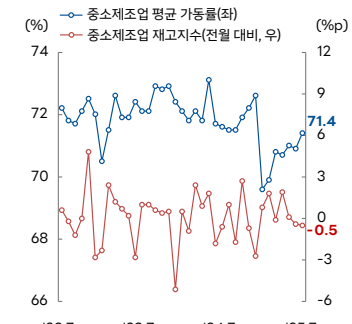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25년 7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 2.0%, 전년 동월 대비로 0.8%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기타운송장비(5.9%) 등에서 증가했으며 자동차(-7.3%), 반도체(-3.6%), 전기장비(-2.5%)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20.5%), 기타운송장비(30.0%), 자동차(6.4%) 등에서 증가했으나 고무·플라스틱(-4.6%), 가구(-23.0%), 통신·방송장비(-8.0%)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증가

2025년 7월 중소제조업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71.4%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소기업(5~49인)은 0.1%포인트 증가한 68.0%, 중기업(50~299인)은 0.9%포인트 증가한 75.2%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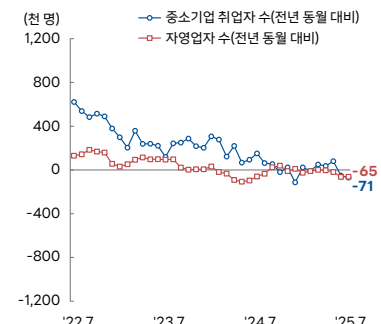
* 2023년 7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재고, 전월 대비 감소

2025년 7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5%p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통신·방송장비(15.6%), 화학제품(0.8%), 전기장비(0.6%)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31.6%), 전기장비(-17.6%), 석유정제(-9.7%)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25년 7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이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14만3,000명이 감소한 반면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7만2,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64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25년 7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5,000명이 감소해 565만6,000명을 기록했다. 📉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이 허위일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올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전문 노무사가
채택된 사건을 상담해드립니다.

✉ dnc_sj05@naver.com



✉ 오늘의 사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수도권에서 40여 명 규모의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요즘 인사 문제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 영업 부문 강화를 위해 경력직 직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력서에 국내 주요 대학 졸업과 관련 업계 5년 경력이라는 내용을 기재했고 면접 과정에서도 상당히 자신 있게 본인의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내부 확인 과정에서 학력이 실제와 다르며 이전 경력도 일부 과장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직원의 업무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거래처 관리에서 실수가 잦고 문서 관리나 협상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도 배신감이 큰데 실제 업무 능력에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고민되는 부분은 입사 과정에서 별도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수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서류로 '허위'가 명확히 입증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용 당시 서류를 간소화하면서 경력 확인을 면접 위주로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 사실 기재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혹은 추가로 어떤 절차나 입증에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즉시 해고가 어렵다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계약 해지, 인사상 조치, 징계 절차 등) 구체적인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판례나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New message

— L X

From 윤형석 노무사

Subject Re: 노무사님, 허위 학력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보내주신 사안을 살펴보건대 경력 및 학력 허위 기재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고의 실제적 정당성(해고의 사유 및 수단·양정)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당사의 채용 당시 서류 간소화 정책으로 당해 직원의 서류 미제출 상황에서도 입사 시 작성된 이력서 등 명확한 기록, 면접 과정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강조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또는 관련자 진술, 허위 기재 사실을 당사가 어떤 경위로 인지했는지, 허위 기재 사실을 최초 인지한 시점에서 곧바로 조사를 착수했는지, 당해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통한 실제 학력·경력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당사가 당해 직원의 허위 기재 사실에 대해 인지한 후 근로자의 태도,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자 진술 등 추가적인 자료 확보, 당해 직원의 이력서 학력 및 경력에 대한 허위 기재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업 내 질서와 노·사 신뢰 관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료, 해당 허위 기재 사실이 없었더라면 당사가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와 관련해 직·간접적 손해(피해)액을 산정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당해 직원과의 근로관계에 대해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등 의사 표시의 하자에 따라 '기망'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방향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채용 취소의 효과는 과거에 대한 소급효 없이 장래에만 발생한다는 것(장래효)이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즉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등은 지급해야 하며 기존까지의 근로관계는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채용 취소는 ▲허위 기재 사실이 근로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는 등 당사에 있어 고도의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이미 제공된 노동의 대가만 지급 및 해결하면 근로계약 관계의 정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단컨대 **당사는 아쉽게도 ▲채용 당시 서류 간소화 정책으로 당해 직원에 대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오로지 당해 직원이 제출한 이력서 및 면접 당시의 구두 진술에만 의존해 채용을 확정했으며 ▲현재까지도 서류의 '허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나아가 고도의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당사에 있다는 점에서 '채용 취소'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고의 실제적 정당성 내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제시해드린 구체적 판단 기준을 참고하셔서 징계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Reply

Forward

Cancel

리더십, 사적 이익을 넘어 공적 정의로

『덕의 상실』(A. 매킨타이어)은 전통적인 덕이 지배하던 정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다. ‘덕의 정치’가 더 이상 실현되지 않는 현대적 맥락에서 정치는 인간의 완성과는 무관한 비인격적 관계(Impersonal Relation)로 바뀐다. 무엇보다 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삶의 의미를 지탱하고 공동체 성원들 사이의 유대를 형성하던 공통의 가치가 무너진다. 이러한 자유주의 정치에 맞서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덕 중심의 ‘공동선’의 정치를 복구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정의론(J. Rawls; R. Nozick)을 비판하고 덕(공덕)에 근거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의론을 강조하지만 그리스의 정치윤리의 복권으로는 오늘날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의 양극화와 세습화가 사회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덕이 있는 강자’의 ‘덕이 없는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때 늘 강조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덕목이 자유주의의 경쟁 논리로 정당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최고지도자는 어떻게 리더십을 갖게 되는가? 원자화된 개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공적 정의’로 수렴하기 위해 공공선에 몸을 바치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자세만이 섬김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리더십에 대한 철학적 단서를 제공하는 칸트(I. Kant)에 따르면 인간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고 지도자의 발견이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가 꼽는 지도자의 덕목은 통찰, 풍부한 경륜, 선한 의지, 세 가지이고 무엇보다 지도자는 ‘공적 정의’의 실현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리더십은 훌륭한 덕목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공선에 헌신해야 한다. 칸트의 지배자 덕목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도덕성은 ‘선한 의지’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무로 완성될 때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리더십의 조건으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덕’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소유’만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산적 합리성’이 아닌 실천적 지혜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근대사회가 덕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원자화, 개별화, 탈(脫)중심화를 촉발하는 자유주의의 이념이 ‘사유’가 아니라 ‘소유의 욕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욕구의 체계’인 시민사회에서 소유하려는 욕망의 무한한 추구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조직된다는 자유의 환상을 경계하고 도구적 합리성과 무한한 이기심으로 무장한 개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의 과제를 리더십이 맡아야 한다. ‘덕의 정치’는 소유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탐욕을 규제할 수 있는 정신(덕)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덕은 귀족의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발현돼야 한다. 

@clipartkorea

Profile. 강용수

-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원
-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 <니체 작품의 재구성> 등

달리기 좋은 계절 가을, 스트레칭으로 더 즐겁게

가을은 달리기 좋은 계절이다. 마라톤 대회와 러닝 크루 활동이 하나둘 시작되며 길 위에는 발걸음이 늘어난다. 하지만 계절의 설렘만큼 마음이 앞서다 보면 몸은 쉽게 따라주지 못한다. 무릎과 근육, 허리에까지 불청객 같은 통증이 찾아올 수 있다. 즐겁고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준비된 시작'이 필요하다.

40대에 막 들어섰을 때, 추진하던 여러 일이 생 각처럼 풀리지 않았다. 다 된 것 같았는데 하나둘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서 매번 좌초됐다. 그때 는 경험도 어느 정도 쌓이고 체력도 있을 때라 밤 낮없이 성과를 내겠다며 과로했다. 결국 몸에 탈 이 났다. 번아웃 직전까지 간 것이다. 쉬거나 보양 식을 먹어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기력했다. 그렇 게 6개월 가까이 심신이 지쳐 지내다 불현듯 생각 난 게 러닝이었다. 어렸을 때 러닝이 삶의 일부였 고 20대를 거쳐 30대 중반까지 대회도 나가며 즐 겠다. 일에만 매달리다 그 좋아하던 러닝도 잊어 버렸다.

오랜만에 러닝을 다시 시작했다. 온몸이 뼈걱거 렸다. 왼쪽 슬개골(무릎 앞에 위치한 뚜껑 뼈) 안쪽에 부 하가 실리며 무거운 느낌이 났다. 천천히 약 150m 달렸음에도 오른쪽 대퇴이두근(햄스트링 중 바깥쪽 근 육) 힘줄에 미미한 통증이 느껴졌다. 팔을 흔들 때 가슴 근육도 결렸다. 가볍게 2km만 달리고 하체 중 심으로 스트레칭과 가벼운 마사지를 했다. 다음부 터는 통증을 느꼈던 부위가 점점 줄었다. 관절 운 동을 하면 관절 주머니에 윤활액을 나오게 해 관 절이 부드러워진다. 지금은 달릴 때 통증도 없고

좋은 컨디션으로 달린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지인과 모여 러닝 전 몸을 풀기에 열을 올린다. 지 인 한 명이 러닝 부상 원인과 예방하는 방법을 물 어본다. 러닝 부상의 주요 원인은 크게 과사용, 잘 못된 기술, 고착된 체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과사용 은 러닝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면 된다. 잘못된 러 닝 기술은 러닝 자세, 주법(보폭, 보폭), 착지법(포어풋, 미드풋, 리어풋), 호흡법 등을 살피고 교정한다. 고착 된 체형은 꾸준한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 하다. 그중 가볍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 레칭이다. 러닝 드릴을 더하면 몸을 이완하는 데 더 좋다.

러닝 전후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평소 일상에서 스트레칭을 틈틈이 한다면 가을 러닝이 더 즐거운 것이다. 최소 하루 10분 스트레칭과 함께 가을 풍 경을 즐기며 달려보자. 

Profile. 안병택

- 바디안 대표
-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매일통증> <4050 생활습관 리셋> 등

러닝 전 실천하는 기본 스트레칭 가이드

① 고관절 굽힘근 스트레칭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왼쪽 다리를 무릎을 펴고 뻗는다.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화살표 방향) 더 구부리고 자세를 유지한다. 왼쪽 고관절 앞쪽에 굽힘 근육이 늘어나는지 느끼며 30초간 유지한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한다. 10회씩 2세트 반복한다.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더 구부리고 자세를 유지한다. 왼쪽 고관절 앞쪽에 굽힘 근육이 늘어나는지 느끼며 30초간 유지한다.



몸통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린다. 옆구리 근육과 고관절 안쪽에 내전근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며 30초간 유지한다.



② 고관절 내전근 스트레칭

양발을 어깨너비보다 최대한 넓게 벌리고 양 손바닥을 무릎 위 허벅지에 놓는다. 몸통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린다. 옆구리 근육과 고관절 안쪽에 내전근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며 30초간 유지한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한다. 10회씩 2세트 반복한다.

③ 대퇴직근 스트레칭

왼쪽 다리를 구부리고 왼손 손으로 발등을 잡는다. 오른쪽 다리는 지면에 대고 중심을 잘 유지한다. 왼손으로 허벅지를 뒤로(화살표 방향) 당긴다. 대퇴직근이 늘어나는지 느끼며 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한다. 10회씩 2세트 반복한다.

오른쪽 다리는 지면에 대고 중심을 잘 유지한다. 왼손으로 허벅지를 뒤로 당긴다.



IBK역사관 IE:UM² 이음스퀘어

시간을 잇고, 가치를 쌓아,
영원을 만드는 공간

이제, 세 개의 큐브로 이루어진 이 공간 속에서
IBK의 끝없는 가능성과 위대한 서사를 만나보세요

2025년 8월 1일부터 함께 합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 IBK기업은행 본점 2층
입장은 1층 미디어월 아래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운영 시간 평일 10:00~16:00 (*주말·공휴일 휴관)

관람 방식 자유 관람 (*단체 관람은 사전 예약제 운영 예정)

입장료 없음

문의 IBK경제연구소 IBK역사관 담당
성효진 과장 02-729-6458, hj.sung@ibk.co.kr

상기 내용은 역사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당당하게, 상속은 단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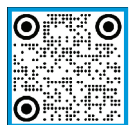
당당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
끝까지 당당할 수 있도록

계약, 설계,
관리, 상속은 물론
기부와 사회 환원까지

당신의 뜻을,
단단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IBK기업은행에서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055호(2025.05.19.~2026.05.18.)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3339호(2025.05.16.) 유효기간(2026.05.12.)
※ 자세한 문의를 가맹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변동,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보장하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 서비스의 기본계약보수(선취)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후취)는 신탁원본의 0.2~0.8%입니다.